



용주사 화산 효행교육원 기공식

수원 용주사(주지 정현) 화산 효행교육원 기공식이 지난 12일 용주사 인근 교육원 설립부지 현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경기도지사 이인제씨, 김인영, 남경우, 정창현, 임경호의원, 김일수 화성군수, 이혜상 화성군의회장 및 신도들이 참석해 효행교육원의 원만한 건립을 기원했다.



목동청소년회관장 명우스님 취임식

목동청소년회관 관장 임명 취임식이 지난 12일 분관 극장에서 거행됐다. 법운스님(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봉스님(양천구민체육센터 관장) 등 스님과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명우스님이 신임관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정임관장 명우스님이 공로패를, 명우스님과 박종철씨(목동청소년회관 총무과장)가 표창패를 각각 수상했다.



정신대할머니 삶터 나눔의 집 기공

광복 50주년 맞이 정신대 할머니들의 삶의 터전인 '나눔의 집' 건립 기공식이 지난 14일 오후 3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에서 거행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한국정신대문제 공동대책위원회장 윤정옥씨를 비롯 정신대할머니 7명과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시현스님, 자비회전화 회장 정덕스님, 진관사 주지 진관스님, 남동 1백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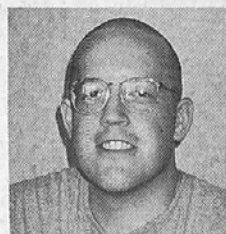
열사·대형참사 영가위한 천도 대법회

강남 봉은사(주지 무상)는 지난 11일 무안분절을 맞아 독립열사, 민주열사 및 대형참사로 숨진 영가 천도를 위한 생명해방의 대축제를 봉행했다. 봉은사와 삼성동일대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석주스님, 월주스님을 비롯 스님 1백여명과 신도 1만여명이 참석한, 풍물굿, 마당극과 불교의식으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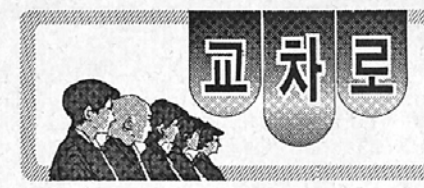
"한국불교 너무 좋아 산문에 있지요"

범어사 인양암에서 수행 존 윌리엄 말콤슨 스님

파란 눈의 행자승이 범어사 인양암에서 한국불교에 흠뻑 심취해 수행정진에 여념이 없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태생인 존 윌리엄 말콤슨(27, John William Malcolmson)이 그 주인공.



(강주 대각스님)의 영어회화 강사로서 학인스님들의 은사스님(?)으로 일하고 있는 말콤슨 스님은 "원시불교의 원형이 많이 남아 있는 한국불교가 너무 좋아 산문에 들어서게 됐다"고 입문의 동기를 밝힌다.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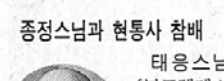
교차로

9월 미주 순회법회서 법문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 사진 위)과 법륜스님(월간 '정토' 발행인)은 9월 11일부터 21일까지 LA관음사, 시카고 불티사, 뉴욕 라마다 호텔, 정명사 등 미주를 순회하는 법회에서 법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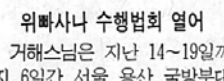


호국 원광사에서 위빠사나 수행법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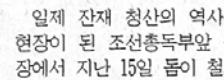
'아미타경'... 출판 기념법회

금담스님(태고종 부원장)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총무원 설법전에서 '아미타경 강설'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중국불교계 시찰

혜철스님(한국불교 포교사 협회장)은 중국 불교협회 초청으로 포교사협회원 15명과 함께 중국불교계를 둘러보고 지난 20일 귀국.



종정스님과 현통사 참배

대웅스님(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을 모시고 백두산과 자장율사의 도량인 현통사를 참배하고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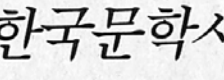
위빠사나 수행법회 열여

거해스님은 지난 14~19일까지 6일간 서울 용산 국방부대 두 스님은 "미침 졸업여행길에서 이런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 보게돼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두 스님은 지난 12일 한국에 졸업여행 왔으며 16일 출국했다. <태>



일제 잔재 청산의 역사적 현장이 된 조선총독부앞 광장에서

일제 잔재 청산의 역사적 현장이 된 조선총독부앞 광장에서 지난 15일 돌이 철거되는 장면을 지켜 본 스리랑카 캘러니대학의 골리다스님과 발리대학의 사라피사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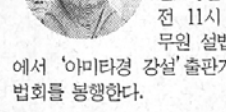


총독부 건물 돌 철거 지켜본 골리다·사라피사 스님

일제 잔재 청산의 역사적 현장이 된 조선총독부앞 광장에서 지난 15일 돌이 철거되는 장면을 지켜 본 스리랑카 캘러니대학의 골리다스님과 발리대학의 사라피사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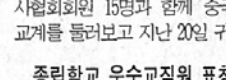
중국 신재부씨 부인등 내한 공연

일북무용가 최승희(崔承喜)의 마지막 제자로 알려진 중국국포 박영자씨와 안승자씨가 지난 9일 일행 6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최승희로부터 직접 무용을 배운 아들중 박영자씨는 중국 불교협회 내의 한국풍으로 알려진 신재부(申在夫)씨의 부인으로 교계의 관심을 모기도 했다. 이들 무용단은 지난 19일 부산공연, 21일 전주공연, 23일 충주공연을 갖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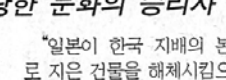
한국 스님들과 나는 인권문제 대화 감동

경실련이 주최한 제1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민사회 포럼'에서 캄보디아 대표로 참석한 요스 후오트 스님은 이 포럼을 통해 한국의 불교·사회단체들과 시민운동발전에 협력하고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태시(민사회)포럼참석 요스 후오트 스님

91년부터 매년 전세계 1백여 시민운동단체들이 참여하는 '평화를 위한 걷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포럼기간중 조계사를 방문, 한국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인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된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스님은 내전과 홍수·가뭄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는 캄보디아에 아태지역 시민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복지관서 간병인 교육

중실스님(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지난 21일 오후 28일까지 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간병인 교육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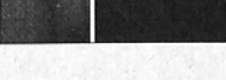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대회

이호식씨(전국어린이가장들이모임 회장)는 지난 20일 서울 봉은사에서 제2회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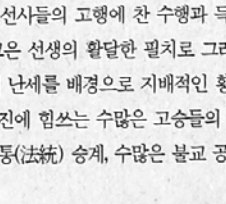
한국은 이제 당당한 문화의 승리자

일본이 한국 지배의 본부로 지은 건물을 해체시킴으로 이제 한국은 당당한 문화의 승리자가 된 것"이라고 평한



두 스님은 "미침 졸업여행길에서 이런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 보게돼 영광스럽다"

두 스님은 "미침 졸업여행길에서 이런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 보게돼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두 스님은 지난 12일 한국에 졸업여행 왔으며 16일 출국했다. <태>



중국 신재부씨 부인등 내한 공연

일북무용가 최승희(崔承喜)의 마지막 제자로 알려진 중국국포 박영자씨와 안승자씨가 지난 9일 일행 6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최승희로부터 직접 무용을 배운 아들중 박영자씨는 중국 불교협회 내의 한국풍으로 알려진 신재부(申在夫)씨의 부인으로 교계의 관심을 모기도 했다. 이들 무용단은 지난 19일 부산공연, 21일 전주공연, 23일 충주공연을 갖기도 했다.

"한국 스님들과 나는 인권문제 대화 감동"

경실련이 주최한 제1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민사회 포럼'에서 캄보디아 대표로 참석한 요스 후오트 스님은 이 포럼을 통해 한국의 불교·사회단체들과 시민운동발전에 협력하고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태시(민사회)포럼참석 요스 후오트 스님

91년부터 매년 전세계 1백여 시민운동단체들이 참여하는 '평화를 위한 걷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포럼기간중 조계사를 방문, 한국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인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된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스님은 내전과 홍수·가뭄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는 캄보디아에 아태지역 시민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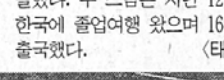
복지관서 간병인 교육

중실스님(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지난 21일 오후 28일까지 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간병인 교육을 실시한다.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대회

이호식씨(전국어린이가장들이모임 회장)는 지난 20일 서울 봉은사에서 제2회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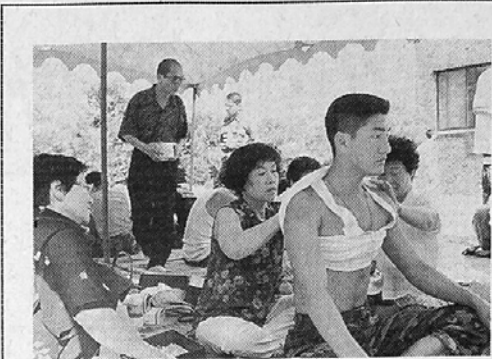
한국은 이제 당당한 문화의 승리자

일본이 한국 지배의 본부로 지은 건물을 해체시킴으로 이제 한국은 당당한 문화의 승리자가 된 것"이라고 평한



두 스님은 "미침 졸업여행길에서 이런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 보게돼 영광스럽다"

두 스님은 "미침 졸업여행길에서 이런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 보게돼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두 스님은 지난 12일 한국에 졸업여행 왔으며 16일 출국했다. <태>



성흔따주기 공덕회 회원들의 따뜻한 손길은 고된 훈련에 지친 장병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한다.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기·책 등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이른 장병들을 돌보는 치료사가 되어 주고 있다. "훈련이 많이 고된거 보구나. 발목도 붓고, 방광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공덕회 회원들은 치료를 받으러 온 훈련병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고, 등을 토닥거리 주는 것에서부터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 것까지 분주한 손놀림으로 이미에 맞는 방법들을 닦을 겨를도 없다. "혈관을 찌르는 삼봉침의 따름함에 이 자리를 모면할까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던 훈련병들은 성흔따주기 공덕회(회장 정유진) 회원들이 훈련소 문을 들어서자 벌써부터 생기가 돈다. 훈련소는 훈련병들의 환호성으로 부대내가 갑자기 잔치 분위기다. "우리 얘기를 어디가 아프지?"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시큰거려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되는 것 같구요."

행군을 마치고 온 30시간 필승부대 신병 훈련소 훈련병들은 여기저기 아픈 곳을 말하며 응석섞인 괴로움을 토로한다. 그리고 훈련병들의 두 눈가엔 성흔따주기 공덕회(회장 정유진) 보살들을 보자마자 이내 눈물이 맺힌다. 고된 훈련에 부모님의 얼굴이 사무치도록 그리웠던 참이었다.

수호사에서 매주 화요일 무구스님께 따주기를 배우는 가정주부, 거사들이 배움을 회향하고 부처님 법을 실천한다는 데 자연스럽게 뜻을 같이 해 결성한 것이 성흔 따주기 공덕회. 이들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를 돌며 열주·선종

도 생각했다"며 말을 꺼내는 훈련병 김정민씨는 곧 "집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훌륭한 사이가 되는 훈련이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그 자리를 들 수 없었다"며 눈가에 두줄기 눈물을 보인다.

훈련병들의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치료해 주고, 정을 나누는 것도 잠깐, 다시 자신들의 가정거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성흔따주기 공덕회 회원들은 부대를 나서면서 "침을 맞았으니 적어도 6시간 후에 샤워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눈다.

도필선 기자

를 위한 아동공부방을 마련한다. 수시접수. (02)421-6077

▲강좌 개설=무설정사 백련회는 9월3일부터 6개월 과정 법화경 강좌를 개설, 등록마감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강의는 매주 일요일 오후1시. (02)983-0198

▲교리경전대회=조계사 청년회(회장 이상상)는 오는 29일 교리경전대회 예선을 조계사 문화관 제1강의실에서 개최한다. (02)722-4994

▲수화·점자 기초반 교실=원시회(회장 석덕신)가 오는 9월18일 기초 수화·점자교실을 개강한다. (02)720-4528

▲동국대 후기학위 수여식=동국대(총장 송석규)는 '역화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오는 25일 오전10시30분 동국대 중앙당에서 개최한다.(02)260-3063

▲방과후 아동공부방=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은 국교 1, 2학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5시까지 학습·놀이지도, 특별활동 등으로 맞붙이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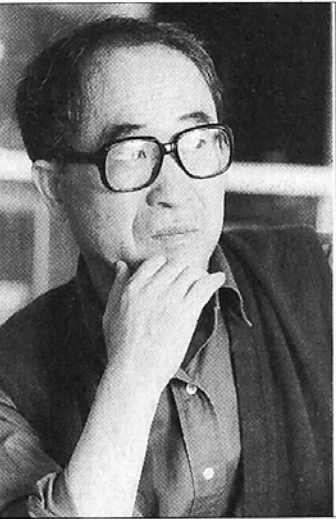
합창단(단장 박병훈)은 새단원을 모집한다. 오디션은 오는 28일 오전11시. (02)653-3940

▲교리경전대회=조계사 청년회(회장 이상상)는 오는 29일 교리경전대회 예선을 조계사 문화관 제1강의실에서 개최한다. (02)722-4994

▲수화·점자 기초반 교실=원시회(회장 석덕신)가 오는 9월18일 기초 수화·점자교실을 개강한다. (02)720-4528

창작과비평사

서울 마포구 용강동 50-1 TEL. 718-0541 ~ 4 FAX. 713-2403



소설 禪 1,2

高銀

선의 역사, 선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소설화한 한국문학사상 최초의 禪小說!

6세기경 페르시아 혈통의 인도승 달마(達磨)가 중국으로 건너가 선종을 연 이래 6조(祖) 해능에까지 이어지는 대선사들의 고행에 찬 수행과 득도, 요묘하고 그윽한 그 불림문자의 세계가 대신인 고은 선생의 활발한 필치로 그려집니다. 5호16국시대, 남북조시대 중국의 난세를 배경으로 지배적인 황실 불교에서 벗어나 대승적 입장에서 수행정진에 힘쓰는 수많은 고승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득도행과 비밀리에 행해지는 법통(法統) 승계, 수많은 불교 공안들이 흥미를 더하며 박진감 넘치게 펼쳐집니다.

고은 선생께서 교외별전(敎外別傳)의 경지를 불교사상 최초로 장엄한 대하소설로 형상화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고은 선생은 잘 알다시피 불교계의 풍운아로 한국의 대표적 자유인이다. 이제 여기 깨달음의 세계를 뼈를 깎아 붓으로 삼고 피를 뿜아 먹음 같은 고행으로써 세상에 내놓았으니, 이 소설은 마음의 근본을 비추는 본래면목의 거울이 아닐 수 없다.

— 동국대 총장 宋錫球

각권 값 6,500원

